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0, pp.131-171  
<https://doi.org/10.29212/mh.2021..120.1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 극동의 방위계획과 재무상과 육군상의 정책대립

—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관련하여 —

최덕규\*

1. 서론
2. 전후 러시아의 재정위기와 대외정책의 방향전환
3. 러시아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과 안중근의 하얼빈의거
4. 러시아의 대일접근과 한러정보협력 구상의 좌절
5. 결론

## 1. 서론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Виктор Коковцов, 1853-1943)는 극동시찰 과정에서 안중근의 하얼빈의거(1909.10.26.)를 현장에서 목도하

---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고 사태 수습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수습과정에서 일본정부와 언론의 반응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었다. 이는 안중근의 의거가 러일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분쟁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던 때문이었다. 그가 안중근의 신문과정에서 한국인으로 밝혀지자 재판 관할권을 일본에 넘기기로 결정하고 일본영사들이 러시아경찰의 입회하에 하얼빈의 한인거류지에 대해 수색할 수 있도록 지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코코프초프가 안중근을 일본측에 이관한 것에 대해 내부적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코코프초프는 파그라니츠나야(Паранная) 관구(管區)법원 검사의 동의를 받고 안중근을 일본측에 넘겼다고 외무성에 통보했던 반면, 관구검사 밀레르(КМиллер)는 러시아측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밀레르는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전음모에 의한 사건임을 직감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현지 경찰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이를 수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코코프초프가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서둘러 안중근의 재판관할권을 일본에 이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러일전쟁 이후 본격화된 러시아의 대일협력 외교로의 방향 전환과 관련이 깊다. 이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이 러일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극동의 방위가 차선책으로 밀려났음을 의미했다. 러시아정부가 쓰시마해전(1905)에서 괴멸된 발트함대 재건계획은 수립하였지만, 태평양함대의 복원계획이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sup>1)</sup>

러시아가 유럽의 정치무대로 복귀한 배경에는 러일전쟁 직후 차르정부가 직면한 재정위기가 있었다. 패전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정파탄에 직면한 차르정부를 기사회생시킬 처방은 외국차관이

1) Щитко КФ *От Прислушко мира к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М. 2000. С.95-101.

었다. 프랑스와 영국이 대러차관 제공의 주역이었다. 이들이 러시아의 파국을 원치 않았던 이유는 신흥 제국주의 세력으로 부상한 독일제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동맹국 프랑스와 일본의 동맹국 영국이 체결한 영불협상(Anglo-French Entente: 1904.4.8.)을 토대로 여기에 러시아를 가담시켜 4국(英佛露日)협상(Quadruple Entente)체제가 완성(1907.8.31.)된 것도 대독(對獨)포위망 구축의 일환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프랑스와 영국의 대러 차관은 러시아의 국방력 재건사업의 토대가 되었다. 영불의 차관에 의존하던 러시아가 이들의 재원을 유럽이 아닌 극동의 방위에 투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러시아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영불의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지역에서 러시아의 국방력을 증강시켜야했다. 반면 극동의 방위는 일본과의 외교적 타협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러일전쟁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 역시 러시아의 대일접근정책의 영향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국내의 안중근 관련 연구는 해방이후 2019년까지 약 45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을 정도로 양적, 질적 발전을 이뤄왔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양분할 수 있다. 하나는 안중근의 사상(동양평화론), 종교, 법정투쟁 등 개인의 영웅적 서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다른 하나는 항일독립운동의 시각에서 하얼빈의거를 다룬 연구들이다.<sup>2)</sup>

2) 조광, 『안중근에 관한 최근연구의 현황과 과제(2010~2019)』,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조명 III-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동북아역사재단, 2020). pp. 12-36. 최근 10년간 안중근 관련 가장 많은 연구가 산출된 주제는 그의 "동양평화론"이었다. 안중근 관련 연구논문이 해방이후 2009년까지 200여 편이 발표되었던 반면, 최근 10년간(2009-2019) 150여 편의 관련 논문이 산출되면서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2009년 안중근 의거 100주년, 2010년 안중근 순국 100주년을 계기로 안중근 관련 연구가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150여 편의 업적 가운데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대한 연구는 약 22%에 해당하는 3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최근 주목되는 일본 논문은 아사다 마사후미(麻田雅文)의 『日露關係から見た伊藤博文暗殺-兩國關係の危機と克服』, 『東北アジア研究』

이는 안중근의 하얼빈의거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중근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얼빈의거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일전쟁 이후 유럽의 국제관계 변화가 노령(露領)에서의 한국독립운동과 어떻게 연동되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노령에서의 항일운동은 차르정부의 反日대결정책 지속과 제2차러일전쟁 가능성에 성패가 달렸음에도, 차르정부는 대일타협 정책으로 선회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전후 러시아의 극동지역 방위를 둘러싼 재무상과 육군상의 의견대립이 전자의 승리로 종결되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1장 “전후 러시아의 재정위기와 대외정책의 방향전환”에서는 차르정부가 러일전쟁의 패배와 혁명의 혼란 속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의 차관을 도입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英佛주도의 국제차관(1906)은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극동에서 유럽으로 방향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제2장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과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에서는 재무상의 극동시찰이 러일전쟁 이후 국방개혁을 둘러싼 재무상과 육군상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안중근의 하얼빈의거가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한 코코프초프의 입장에서 처리된 주요원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제3장 “러일우호관계 수립과 한러정보협력 구상의 좌절”에서는 안중근의 하얼빈의거가 차르정부의 극동방위정책과 노령에서의 한국독립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역사문서관(РГИА) 소장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16號(2012)인바, 이 논문은 러시아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이토의 저격에 대해 일본 측이 러시아에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러일관계 진전에 기여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였다.<sup>3)</sup> 아울러 본 연구가 한일역사문제에 한정되어 있던 안중근 연구의 범위를 글로벌히스토리(Global History)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고찰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전후 러시아의 재정위기와 대외정책의 방향전환

1909년 가을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은 러일전쟁 이후 극동지역의 방위력 재건사업의 현황과악이 그 목적이었다. 이는 극동지역 방위력 재건을 위한 재정지원이 억제되고 있다는 육군상의 상주와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공사를 독촉하는 연흥룡강주 총독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코코프초프에게 부여된 과제는 극동의 방위력 재건사업이 왜 지지부진한지 원인을 파악하여 그 해법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차르정부가 러일전쟁 이후 극동지역의 방위력 재건사업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차르정부가 러일전쟁 패전과 혁명의 혼란 속에서 재정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와 영국이 제공한 차관(1906)때문이었다. 둘째, 러시아는 이 차관을 극동방위 재건과 군사력증강 보다는 영불의 관심지역인 유럽지역의 군비재건과 발트함대의 복원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와 영국이 패전국 러시아를 지원했던 이유는 신흥제국 독일과의 유럽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러시아와 동맹관계에

3) 러시아역사문서관(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ПИЯ) 문서군(Фонд) 560번, 문서파일(Дело) 416-424번이 활용되었다.

있었던 프랑스는 독일이 러시아의 혼란과 쇠락에 대한 유일한 수혜자가 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영국으로부터 모로코(Morocco)를 자국의 세력권으로 인정(1904)받았음에도 독일의 빌헬름 2세(Wilhelm II)의 모로코 문제 개입에 속수무책이었다. 독일은 1905년 3월 러시아가 만주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을 틈타 모로코에 개입함으로써 동맹국 러시아가 없는 프랑스에게 위기감을 조성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가 러일전쟁의 조기종전을 위해 대러차관 제공을 거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전비조달 통로를 단절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장기전 의지를 꺾고자했다. 1905년 3월 만주의 봉천(奉天)전투 직후 “순전히 재정적 시각에서 전쟁의 지속은 우리를 더욱 더 곤란하게 만들것”이라는 재무상 코코프초프(ВНКОФОВ)의 상주(上奏)는 프랑스의 대러차관 중단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sup>4)</sup>

러시아가 만주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을 틈타, 독일의 빌헬름 2세(Wilhelm II)가 모로코에 개입함으로써 동맹국 러시아가 없는 프랑스에게 독일은 결코 용이한 상대가 아니었다. 프랑스 외상 델카세(Théophile Delcassé)가 독일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과도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료들을 설득했음에도 프랑스의 루비에(Maurice Rouvier) 수상이 수긍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영국함대는 파리를 구해 주러 올 바퀴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sup>5)</sup>

러일전쟁의 봉천전투(1905.2.20-3.10.)와 연동된 모로코 사건은 러시아의 패전이 유럽의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모로코 문제가 독일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국제회의 소집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1905.6.6.)된 것은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4) ОН Кузнецов Длний Влск и ривле русо-фрнцузк ор нени в 1902 -1905 г., *Вгрьлскри* №3, 2009. С.39-40.

5) 위의 논문. С.42.

파국이 유럽에서 프랑스의 입지 약화로 연동되었기 때문이었다.<sup>6)</sup> 따라서 모로코 문제 해결을 위해 스페인의 알제시라스에서 국제회의(Algeciras Conference, 1906.1.16-4.7.)를 소집하기로 한 결정은 프랑스의 완전한 외교적 패배를 의미했다.<sup>7)</sup>

러시아의 패전의 여파는 유럽에서 동맹국 프랑스의 입지약화에 국한되지 않았다.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할 경우, 영국은 자국군대를 프랑스로 파병할 계획을 수립해야했다. 1905년 겨울부터 영국 참모본부에서는 독일이 벨기에(Belgium)의 중립을 유린할 경우, 영국 육군이 유럽대륙에 상륙하여 프랑스 육군과 공동작전 수행을 계획하였다.<sup>8)</sup> 프랑스 역시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은 혁명의 위기 속에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영국 육군과의 군사협력 계획에 호응했다. 영국이 해전을 중시했던 전통적인 전쟁방식을 포기하고 육군원정대(British Expeditionary Force)의 유럽 대륙파견까지 준비한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의 전후 복구에 프랑스와 영국이 가장 적극성을 보인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국방력 재건사업은 프랑스와 영국의 대러 재정 지원 규모와 밀접하게 맞물리게 되었다.

6) John C.G.Röhl, *Wilhelm II Into the Abyss of War and Exile, 1900-1941*, pp.418-436. 스페인의 알제시라스(Algeciras)에서 개최된 국제회의(1906.1.16.-4.7.)는 1905년의 프랑스와 독일의 모로코 위기를 해결할 목적에서 개최되었다. 이 위기는 독일이 독립국가인 모로코를 보호국화 하려는 프랑스의 팽창정책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불협상의 결속력 역시 약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4개국(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만 투르크, 모로코)이 참가한 회의에서 러시아가 프랑스를 적극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독일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7) Olga Crisp, *The Russian Liberals and the 1906 Anglo-French Loan to Russia*,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1961, Vol.39, No. 93, p.506.

8) William J. Philpott, *The making of the Military Entente, 1904-1914: France, the British Army, and the prospect of War*,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Oct. 2013, Vol.128, No.534, pp.1155-1156.

프랑스와 영국의 대러차관은 패전국 러시아를 기사회생시킬 비책이었지만 제공 여부는 알제시라스 회의 결과와 연동되었다. 이 회의에서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 방향이 친불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대독접근으로 선회할지를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알제시라스회의는 러시아의 차관도입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러시아를 구원하기 위한 차관도입과 프랑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전달할 임무는 전임 재무상 코코프초프(ВНКочов)가 맡았다. 그를 천거했던 사람은 시베리아철도 부설사업을 주도했으며 포츠머스 강화회의 러시아 측 전권수석을 담당했던 비테(Сивиле)였다.<sup>9)</sup> 따라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코코프초프에게 부여된 차관도입의 임무는 러시아를 소생시키기 위한 지상의 과제가 되었다.

코코프초프가 프랑스로 출발하기에 앞서 황제를 알현한 사실은 외자유치 성사 가능성을 고조시켰다. 왜냐하면 니콜라이 2세는 코코프초프에게 “러시아의 재정형편을 소상히 알리고 차관이 없으면 러시아의 파국은 불가피함을 통보”토록 훈령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러시아는 모로코 문제와 관련한 알제시라스 회의에서 프랑스를 지지할 것임을 암시하라고 지시했다.<sup>10)</sup> 따라서 코코프초프는 모로코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프랑스 지원이라는 지렛대를 휴대하고 차관도입 교섭을 위해 1905년 12월 30일 파리로 출발했다.

러시아 정부 대표 코코프초프와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은행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대표들이 파리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모인 것(1906.4.16.)은 알제시라스 회의가 독일의 빌헬름

9) ВНКочов, Из Моего Прошлого: Воспоминания 1903–1919, Т.I, Париж 1933. С.118–119.

10) ВНКочов, Из Моего Прошлого. С.119. 코코프초프의 회고록에 따르면, “황제는 프랑스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의사를 외무성이나 주불대사를 통해 전달하기 보다는 황제의 특사 코코프초프가 직접 프랑스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신뢰를 더함으로써 차관을 성사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고 한다.

2세의 외교적 실패로 막을 내린(1906.4.7.) 직후의 일이었다. 이 회동에서 러시아는 패전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22억 5천만 프랑의 전례 없는 대규모 대러 차관(연리 5%)의 제공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었다.<sup>11)</sup>

1906년 대러 차관의 주축은 프랑스 자금이었으나 영국이 대러차관의 1/4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영국은 독일의 방해로 이 차관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재정위기에 몰린 러시아의 운명이 유럽의 국제관계에 끼칠 영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06년 대러차관은 영국이 프랑스의 중재로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sup>12)</sup>

영러협상(英露協商)의 체결(1907.8.31.)은 1906년 대러차관 성사 이후 당연한 수순이 되었다. 또한 러시아가 일본에 제의한 동아시아 문제 관련 외교적 타협안 역시 러일협약 체결(1907.7.30.)로 귀결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과 남만주를 일본의 이익권으로, 외몽골과 북만주는 러시아의 이익권으로 비밀리에 상호 인정한 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sup>13)</sup>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병합을 견제하거나 저지하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sup>14)</sup> 이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11) В.Н.Косов, *В Мое Царство*, С.162. 러시아의 파리주재 재무관 라팔로비치(A.Rafalovich)는 1906년 1월부터 대러 차관 계약일까지 프랑스 언론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20만 프랑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포츠머스강화조약 체결 후, 프랑스 언론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금 규모를 10만 프랑으로 축소하자 파리 언론들은 대러 차관 제공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보임으로써 이를 회유하기 위함이었다.(J.W.Long, Russian Manipulation of French Press, 1904-1906, *Slavic Review*, Vol.31-2, pp. 352-353.)

12) Olga Crisp, The Russian Liberals and the 1906 Anglo-French Loan to Russia,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39, No. 93, p.508. 이 차관은 1907년 아시아 대륙 전반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오랜 대립을 종식시키고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티베트에 대한 영러간의 타협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13) Masato Matsui, The Russo-Japanese Agreement of 1907: Its Causes and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Modern Asian Studies*, Vol.6, No. 1(1972). p.33.

14) 러일협약은 2개조의 공개 조항과 4개조의 비밀조항이 있다. 비밀조항 제2조에 따

전개되던 한국의 항일독립운동의 방향과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와 일본이 영국과 프랑스가 원하고 있는 종래의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을 강화한다면 露領지역 한인독립운동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입장 역시 변모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다.

코코프초프는 1906년 차관도입을 계기로 재무상에 임명(5.8.)된 후<sup>15)</sup> 1914년까지 러시아의 재정을 관장했다. 패전과 혁명의 혼란기에 누구도 중책을 맡지 않으려한 상황에서 그가 재무상에 장기 복무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외적인 호의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6)</sup> 대내적으로 황제의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고 국제적으로 프랑스와 영국 주도의 대러 차관 제공이 안전판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외교적으로도 러불(露佛)동맹이 영불러일(英佛露日)의 4국협조체제(Quadruple Entente, 1907)로 발전함으로써 평화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코코프초프가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 경제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독견제 역할의 대가로 제공된 영불차관이 있었다. 그럼에도 차관은 상환해야 할 부채였다. 부채의 상환을 위해

---

르면, 러시아는 현존하는 한일 정치관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로 하고 있었다. John A. White, *Transition to global rivalry: alliance diplomacy and the Quadruple Entente, 1895-19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 304-306.

15) В.Н.Кокорев, *Из Моего Прошлого: Вспоминания*, С.171-173. 1906년 대러차관 계약을 누구보다 반겼던 인물은 황제 니콜라이 2세였다. 차르는 "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서도 러시아와 짐에게 잊을 수 없는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귀하가 개인적으로 보고하기를 기다리겠다"고 코코프초프에게 타전한 후, 그를 재무상으로 기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코코프초프는 건강상의 이유로 고사했지만, 결국 러시아 최초의 근대적 의회(Дума) 소집 전날(1906.5.8.) 그에게 전달된 봉투는 황제의 재무상 임명장이었다.

16) Переписка В.Н.Кокорева Эд.Нелину, 28 Июля(10 Aug.)1906 г. *Красный Архив* (이하 К.А.로 약함)1923. Т. 4. С.133. 네슬린 역시 새로운 내각의 재무상에 코코프초프가 임명된 것이 프랑스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최선의 보장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무상은 새로운 세원(稅源)발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방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국방재건계획은 시종일관 재무성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코코프초프가 대리차관(1906)에 근거하여 수립한 1907년 예산의 편성원칙은 균형재정이었다.<sup>17)</sup> 이를 위한 방책으로 그는 새로운 예산소요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편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럼에도 러시아 국내 상황은 적자 없는 균형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재정지출의 토대인 국고수입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지출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만 균형재정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코코프초프의 균형재정론에 대한 또 다른 복병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군비재건사업이었다. 육군성은 러일전쟁 이전 보다 증강된 병력을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육군상 레디게르(АФ Редигер)는 러일전쟁 패전의 원인이 병력과 장비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레디게르가 1906년 10월 육군 전투력 재건을 위해 134,000명의 상비군 증강을 위한 2억1천500만 루블의 예산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sup>18)</sup>

육군성의 이같은 요구에 코코프초프가 택한 방위비 억제 방안은 국가의회(두마:Дума)에 예산안 심의를 위임하는 것이었다. 입법

17) Переписка ВНКовцов ЭдНайну, 14(27) нояб. 1906 г. КА, 1923 Т. 4. С.143-146. 코코프초프는 네츨린에게 “내년도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수입규모에 만족해야한다. 새로운 조세수입을 위한 과세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한다. 있으나 의회는 해산되고 말았다. 여타 새로운 과세안들은 의회가 새로 소집될 경우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907년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나의 과세입안이 의회에서 언제 심의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세안은 결국 1908년 이후에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알렸다.

18) Шиндло КФ. *От Прислужного мря к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М., 2000, С. 126-127. 러시아 육군은 병역의무자 138,100,000명의 1%를 평시병력으로 운용함으로써 1900년 1월 1일 기준 육군 병력은 1,385,061명이었다.

부의 힘을 빌려 군부의 방위비 증액을 견제하려는 계획이었다. 재무상이 입법부의 승인을 얻은 합법적인 예산소요만을 지출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던 이유도 과도한 국방예산에서 비롯된 적자재정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다. 국가의 신용도를 높여 지속적인 차관도입을 위해서는 재정균형이 필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육군성의 방위비 증액요구는 의회의 동의를 거친 국채발행을 통해서만이 실현 가능한 까다로운 절차가 추가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재무성과 육·해군성의 격렬한 대립이 야기된 원인도 예산통제권을 장악한 의회제도의 도입 때문이었다. 이는 재무상이 군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맞서 방위비 예산을 입법부의 승인을 거쳐 지출하는 구조를 마련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재무성에 대한 육군상 레디게르(1905-1909), 해군상 비리료프(А.А.Бирлев: 1905-1907), 디코프(И.М.Диков: 1907-1909)의 예산증액 압박이 심해질수록 재무상 코코프초프는 이에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코코프초프가 군부의 자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제안하고 나선 이유도 세수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세원발굴이 곤란한 형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육군성이 새로운 추가예산을 요구할 경우, 한정된 예산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해법은 구조조정밖에 없었다. 이는 병력을 감축하여 그 절감비용으로 새로운 방위력 증강사업에 투입한다는 고육책이기도 했다.<sup>19)</sup> 이에 각료회의에서 육군성의 추가예산 배정요구를 거부하기로 한 결정은 1909년 3월 육군상 레디게르가 사의를 밝힌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다. 평시의 상비군 병력을 감축하고 군부대 재조

19) М.В.Зиц, Пулясье из Песбры ю Вилкоі К Втру о проицривъ пулясье Руси по поцу финиорвни вооруженья сил нквуме ге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в Слп. универсилса. Нв Истори. Мждмаронье оннени. 2017. Т. 17, вып. 4. С.447-449. 1909년 육군성의 예산은 4억7천만 루블인바, 이는 국가예산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직 계획안 제출을 요구한 것이 보다 본질적인 원인이었다.

수호플리노프(ВАСухомлинов)신임 육군상은 전임 레디게르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방예산을 둘러싼 육군성과 재무성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그는 코코프초프가 편성한 1910년도 예산안 검토를 위한 특별자료회의(1909.6.22.)에서 병력감축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러시아 육군은 가상적국의 전투력에 준하는 규모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바, 국경선의 길이, 수비해야 할 영토의 방대함과 거주인구의 희소성 그리고 교통상황을 고려할 경우, 평시의 병력도 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그 논거였다.<sup>20)</sup> 따라서 국방예산을 둘러싼 양대 부처간의 이 같은 입장차는 1909년 가을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문제와 관련한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공사의 필요성은 연혹룡강 군관구(軍管區)사령관 운테르베르게르(ПФУнтербергер)의 정책건의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요새화하고 그 외곽에 육상과 해안 방위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일본군의 상륙과 후방공격을 격퇴한다는 작전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일본 및 청국과 새로운 분쟁이 발발할 경우, 연혹룡강 군관구는 유럽러시아의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극동러시아를 사수한다는 작전계획을 세운바 있었다.<sup>21)</sup> 따라서 작전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공사가 착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은 재무상의 현지시찰을 통하여 해법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정과제가 되었다.<sup>22)</sup>

육군상이 사업의 지연책임을 재무성에 전가하는 보고서를 차르에

20) Особый Журнал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6 июня 1909 г.

21) РС. Авлов, Пъ Трансѣбу на Востокъ. Визитъ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ъ В.Н.Кокорѣва въ Приморскій Военный округъ, Востокъ *Томскаго госуни*, № 405. 2016, С.38-49.

22) ВИКлини, НБАощи, Крѣпость Владивостокъ. *Россия и АТР*. № 4. 2000. С.112- 121.

게 올리면서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육군상은 전후 복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된 주요 원인을 예산지출 승인을 하지 않았던 재무성 탓으로 돌렸기 때문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 방위강화를 위한 예산을 재무성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이 상주(上奏)의 요지였다.

코코프초프는 육군상의 책임전가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가 최근 3년간 블라디보스토크 방비강화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깎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산서류들을 제출했다. 더욱이 이 서류들은 이미 3년 전에 육군성에 배정된 예산조차 전혀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재무상의 주장에 따르면, 불용(不用)예산이 쌓여있음에도 육군성에 새로운 예산 배정을 반대하지 못한 것이 재무성의 유일한 과오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무상이 수호블리노프의 예산요청에 대해 육군성 자체예산 가운데 집행되지 못한 불용예산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sup>23)</sup> 그렇지 않을 경우, 긴급한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sup>24)</sup>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방비 강화를 위한 예

23) КФ Шишло, *Последние во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 7-8, 1991. С.224-233. 극동지역 방위력 강화문제는 러시아의 군대의 근대화작업의 일환이었다. 러일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 러시아 군장비의 근대화 사업에 18억 루블이 책정되었으나 실제로 1914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1/5에 해당하는 376,500,000루블에 불과했다. 이는 예산이 부족했거나 코코프초프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러시아 행정부, 특히 육군성과 해군성의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산물이었다. 이들은 러시아군수산업과 마찬가지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당면한 예산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24) МВЗийев, *Путешествие Петербург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449-450. 1906년 러시아헌법(4.23.)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등장함으로써 행정부서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은 부처별로 다양한 충위를 드러냈다. 특히 육군성은 예산 획득에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차르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했던 전통에 익숙했던 군부 특히 육군성은 의회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산을 지원했음에도 왜 작업이 진척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제 1의 과제가 되었다. 재무상 역시 지난 3년간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극동방위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깎지 않고 지원했었기 때문이었다.<sup>25)</sup> 이는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재무상을 직접 극동에 파견한 이유이기도 했다.

### 3.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과 안중근의 하얼빈의거

1909년 가을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계획이 수립되었을 당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하얼빈 회동은 예정에 없었다. 코코프초프는 1909년 9월 22일 동청철도(東淸鐵道: Chinese Eastern Railway)와 하바롭스크 및 블라디보스토크 시찰계획에 대한 차르 니콜라이 2세의 재가를 득했다.<sup>26)</sup> 재무상의 극동시찰은 1910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찰기간과 장소는 극히 제한되었다.<sup>27)</sup>

5주의 시찰기간에 동청철도 구역을 벗어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북경주재 러시아 공사 코로스토베츠(ИЯКростов)는 재무상을 만나기 위해 하얼빈으로 와야 했다.<sup>28)</sup> 코코프초프는 1909년 봄

25) МВЗайцев Путешествиев Петербург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С. 448-449.

26) РИА Ф560. Оп.28. Д416. Л6-8. Всего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9 сентября 1909 г.

27) Переписка Н.Коростова Эд.Нагину, 21 сентября(4 октября) 1909 г. КА 1923 Т. 4. С.155-156. 코코프초프는 1909년 10월 4일 극동으로 출발하면서 대러차관을 위한 프랑수앵켄소시업의 책임자 네출린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러시아의 대외신용도에 영향력을 가진 프랑스 언론에서 러시아의 1910년도 예산편성 자료에 관심을 보이자 자료를 송부했음을 알렸다.

부터 일본정부의 訪日 제안을 받았음에도 도쿄방문 계획은 그의 일정에 없었다. 따라서 하얼빈에서 이토와의 회동은 코코프초프가 극동시찰 여정에 오른 후에 결정된 사안이었다.

코코프초프는 1909년 10월 1일 극동시찰 여정에 올랐다. 그가 시베리아 철도와 동청(東淸)철도의 분기점이었던 만추리(滿洲里)역에 당도(10.11.)했을 때, 극동시찰의 최대 고비가 될 결정을 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를 통해 하얼빈에서 회동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고 주일 러시아 상무관 빌렌킨(Г.А.Вилкин)이 타전해왔기 때문이었다.<sup>29)</sup>

같은 날(10.11.) 주일러시아대사 말렙스키-말레비치(НАМЛѢВСКИЙ-Малевич)는 이토의 만주시찰여행 계획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외무성에 보고했다. 그 요지는 다음의 3가지였다. 첫째, 이토의 만주시찰 여정은 대련-심양-하얼빈-블라디보스토크이며 약 8명의 수행원이 동행예정이다. 둘째, 이토는 공식직함을 갖고 있지 않지만 친러 인사라는 평판을 얻고 있으며, 하얼빈에서 코코프초프와 회동을 원한다. 셋째, 동청철도와 남만주철도간의 접속 문제와 극동문제 전반에 걸친 러일 양국간의 관계강화를 원한다는 것이었다.<sup>30)</sup>

이틀 후(10.13.) 주일대사는 이토의 만주여행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해왔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이토의 하얼빈 방문은 코코프초프를 만나 최근에 체결(1909.9.4.)된 청일(淸日)협약<sup>31)</sup>과 관련한 협의

28) РГА Ф.560. Оп.28. Д.416. Л.9. Копия телеграммы движения О бщества КВЖД в Пекин от 10 сентября 1909 г. на имя Курсына

29) РГА Ф.560. Оп.28. Д.416. Л.44. Телеграммы Вилкина илько на имя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от 28 сентября 1909 г.

30) Там же. Л.61. Сведения о ервма Миско-Мисина 28 сент. / 11 ская бря 1909 г.

31) Там же. Л.77-78. Таскзрентий телеграммы Тонца МД на имя Курсына, 30 сент. 1909 г.

가 목적이며 둘째, 러일 상호간의 만주에 대한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토대 구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동청철도와 남만철도의 화물 환적(換積)에 관한 협약체결을 마무리하고, 러일전쟁 전후처리 과정에서 일본이 거부한 러시아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토의 하얼빈 방문 목적이 청일협약으로 불거진 미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러(對露)접근책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일상무관 빌렌킨이 코코프초프에게 보낸 기밀보고서(1909.10.14.)는 이토가 사전 협의 없이 급히 만주로 출발하게 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32)</sup> 빌렌킨은 이토가 만주시찰 목적을 기분전환 겸 오랫동안 못가 본 장소에 다시 가고 싶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연의 목적은 만주문제를 둘러싸고 악화된 미일관계의 타개책을 찾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토의 출장지역이 최근 미일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만주임에 주목, 이토의 만주시찰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실무적 출장으로 파악했다. 왜냐하면 문제의 지역은 청국이 '만주의 광산과 철도 관련 청일협약'(1909.9.4.)<sup>33)</sup>을 통해 무순(撫順)탄광과 안동-봉천철도 보강공사구간의 광산채굴권을 일본에게 양여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이토가 '만주의 광산과 철도 관련 청일협약'(1909.9.4.) 체결 직후 코코프초프를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이 협약이 미일갈등의 단초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협약이 만주의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명시한 “루트-다카히라(The Root-Takahira Agreement of 1908)<sup>34)</sup>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

32) ПИА Ф560. От28. Д421. Л7-15. Державе пово Влениа Кюенцв уор 1 октябрия 1909 г.

3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09. pp. 118-120. Japanese-Chinese Agreement concerning Mines and Railways in Manchuria.

34) 『共立新報』 1908년 12월 16일, "論美日協商, 미국과 일본이 서로 협상한 것을 의문함". 이승만은 공립신보에 기고한 “루트-다카히라 협상”에 대한 분석 글에서 이

문이었다. 요컨대 미일갈등의 요체는 러일전쟁의 전리품으로 획득한 남만주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한 일본과 “문호개방(Open door)과 기회균등”의 슬로건으로 만주시장 진출을 도모한 미국의 이해 대립에 있었다.

빌렌킨은 이토의 하얼빈 방문의 숨은 공로자로 만철(滿鐵)총재를 역임했던 고토 신페이를 꼽았다. 그는 재무상의 극동시찰 소식을 접하고 도쿄방문을 성사시키고자 했으나 불가능해 보이자 가즈라(桂太郎)수상을 통해 이토의 만주시찰을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이토는 주일러시아대사 말랩스키-말레비치를 방문하여 하얼빈 회동을 제안했고, 고토 신페이를 통해 빌렌킨에게 이 제안을 재무상에게 타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말랩스키-말레비치 대사는 이토의 하얼빈 회동 제안을 일본측의 우호적인 대러 접근의 표현으로 평가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이 회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게 러일 양국이 만주에서 이해를 일치시키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청국의 지속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일본은 러일간의 협력관계를 과시함으로써 만주의 문호개방과 청국의 영토보전을 약속한 루트-다카히라 협정을 무력화하는 대신 만주에서 행동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일본이 대러접근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핵심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나포한 러시아 선박의 반환 문제였다. 이는 러시아 언론의 반일여론 조성을 위한 빌미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러시아는 러일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결과제로 남겨진 동청철도회사 소유의 증기선 3척 [만추리아(Манчурия)號, 아르군(Аргун)號, 목덴(Мукден)號]의 무조건적인 대러 반

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미부여를 한바 있었다. “우리의 소견으로 말할진대 이 협상이 양국의 시비를 막은 것도 아니오 물린 것도 아니오 시비를 준비하는 시작이라 하노라.”

환 문제를 하얼빈 회동의 의제로 삼고자했다.<sup>35)</sup> 빌렌킨이 동청철도 회사 소유의 선박(1,759,000루블 상당) 반환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 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유도 일본이 남만주철도와 동청철도의 화물환적에 관한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토의 회동제안에 대해 코코프초프가 자신의 하얼빈 체류 일정을 통보함으로써 회동준비가 본격화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여정의 3박4일(10월 24-27일) 혹은 상행선의 2박 3일(11월 7-9일) 가운데 택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이토에게 주어졌다.<sup>36)</sup> 이토는 주일러시아대사 말랩스키-말레비치를 직접 방문(10.11.)하여 코코프초프가 10월 25일 하얼빈에 도착한다는 주러 일본대사관의 보고를 재확인하고 하얼빈 회동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전달했다.<sup>37)</sup>

주일상무관 빌렌킨은 코코프초프가 하얼빈 회동에 동의했음을 일본에 통보하자, 이토의 하얼빈 도착날짜가 10월 26일로 확정되었음을 기밀 보고(10.14)하였다. 이후 빌렌킨은 이토의 수행원 명단과 함께 그의 하얼빈 도착일정에 대한 최종 보고(1909.10.16.)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당국은 이토 일행이 관성자(寬城子)에서 하얼빈으로 10월 25일 밤차로 출발예정임을 알게 되었다.<sup>38)</sup>

35) РГАФ.Ф.560.Оп.28.Д.416.Л.132-133. **Телеграмма** Урванягому Директору Казанскому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9 октября 1909 г. 동청철도 이사회의 보고에 따르면, 목텐호는 1904년 1월 24일(서력 2.7.)부산에서, 아르군호는 1월 25일(2.8.) 대한해협에서, 만추리아호는 2월 4일(2.17.) 나가사키에서 일본 해군에 나포되었다.

36) РГАФ.Ф.560.Оп.28.Д.421.Л.2. **Телеграмма** Кюндя Виленину, 28 октября 1909 г.

37) РГАФ.Ф.560.Оп.28.Д.421.Л.3-3об.: **Кля** **сестрой** **телеграммы** Милевскому-Милевки ча, 11 октября 1909 г. 주일러시아대사 말랩스키-말레비치는 이토의 만주여행에 대해 대러주재 러시아영사, 북경주재 러시아공사 그리고 연흥룡장주 총독에게 통보(10.11.)했다.

38) Там же. 16-17об. **Письмо** Виленикина Кокочеву 3 октября 1909 г. 빌렌킨의 보고서에는 이토를 수행할 인사들의 명단도 첨부되어 있었다. 수행원은 9명이었으나 모두 동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보고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나카무라(中村是公) 滿鐵 의장, 2) 무로타(室田義文), 이토의 친구 이자 전 멕시코대사 3)

러시아황제는 코코프초프가 이토와의 하얼빈 회동에 동의했음을 보고한 상주서에 “중립지역에서 그러한 회동은 유익할 것이다”라고 재가(10.15.)하였다.<sup>39)</sup> 하얼빈은 러시아 혹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력과 간섭이 배제된 채 양국의 관심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최적지로 간주되었다. 러시아 부외상 사조노프(С. Д. Сазонов)가 하얼빈 회동을 러일전쟁 전후처리의 미결과제 해결의 기회로 간주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일본정계 거물이 노구를 이끌고 만주로 러시아 재무상을 찾아오게 한 정황은 결코 러시아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빌렌킨이 코코프초프에게 이토의 하얼빈 도착 일정을 보고(10.16.) 함으로써 하얼빈 회담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코코프초프가 파악한 이토의 일정은 10월 25일 밤 관성자를 출발하여 10월 26-27일까지 하얼빈에서 체류하다 10월 27일 밤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하는 여정이었다. 이에 코코프초프는 연흥룡강주 총독 운테르베르게르에게 이토와 하얼빈 회동 이후 하바롭스크를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예정이지만,<sup>40)</sup> 정확한 날짜를 예정할 수 없다고 타전(10.24.)할 수밖에 없었다. “이토와 회동이 나를 얼마나 붙잡아둘지

오우치, 관동총독부 외무처장 4) 후루야(古谷久綱), 이토의 개인비서 겸 황실 의전국장, 이토의 오른팔 이자 무로타의 사위 5) 테이, 외무성 관리, 중국통이자 만주와 청국관계 전문가 6) 마츠키, 참모부 소령으로 러일전쟁사 전문가이자 이토에게 만주의 군사적 측면에서 역사적 장소들을 설명하기 위해 임명 7) 타츠이-남만주철도 총비서 8) 모리, 황실장관의 개인 비서이자 일본현대사의 대가이자 이토의 친구의 자격으로 동행 9) 고야마, 황실청 산하의 의사.

39) Там же ЛП9. Телеграмма кайно ослениа Вбра Кююцу, 4 октября 1909г. “Безопасна на нейтральной зоне может быть плен”

40) Там же ЛП21. Телеграмма Приморского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а Коковцову, 4 октября 1909 г. 운테르베르게르는 이토가 하얼빈 회동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귀국하는 일정을 통보받고 코코프초프에게 하바롭스크를 거쳐 그곳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함께 출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이토가 먼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일본으로 귀국한 이후, 현지에도착하는 것이 블라디보스토크 시찰에 보다 편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sup>41)</sup> 따라서 당초 1909년 10월 24일 저녁 6시 하얼빈에 도착하여 10월 28일 오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예정이었던 코코프초프는 10월 25일부터 이토와의 회동을 준비하게 되었다.<sup>42)</sup>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직후(1909.10.26.) 사고수습에 나선 현장의 최고위직 인사는 코코프초프였다. 그가 최우선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문제는 책임 소재였다. 러시아 조차지 하얼빈에서 발생한 한국인이 일본의 정치가를 저격한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의 핵심은 러시아측의 경호 소홀인지 아니면 입장객의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책임인지 판별하는 문제가 관건이었다.

코코프초프가 경호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정리하여 외무부 상 사조노프(НДСазонов)에게 전달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러시아 철도당국이 환영객에 대한 예비검속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을 경우, 그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환영객들은 특별한 이름표를 가지고 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동청철도 운영진은 이틀간 일본총영사에게 일본국적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표를 보내야하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영사는 어떤 표도 없이 자유롭게 일본인들의 출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저격범의 외관은 전형적인 일본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일본인들 사이에 있었다. 일본인들도 그를 조금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 일본총영사가 일본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일본영사관 서기가 나에게 확인해주었다.”<sup>43)</sup> 요컨대 코코프초프는 사건의 책임이 입장객 단속을

41) Ёж ЛЗ7. Тэгрма Кэсон Укбэру, Пэсэря 1909 г. в Харбэ

42) РГИА.Ф.560.Оп.28.Д.418.Л.56: Программа.

43) РГИА.Ф.560.Оп.28.Д.421.Л.38-38об. 주청러시아공사 코로스토베츠의 기밀서신[1909.10.14(27)]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에서는 하얼빈역에 군중들의 입장을 제한하기 위하여 유럽과 중국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했으나 일본인들은 일본영사의 희망에 따라 제한 없이 입장시켰다. 코로스토베츠는 이러한 경솔한 판단이 군중 속에서 안중근에 대해 주의하지 못한 원인으로 진단했다.(АВПРИ.Ф.150. О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일본영사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코코프초프가 책임소재 파악과 더불어 사태수습을 위해 주목한 또 다른 문제는 하얼빈의거에 대한 일본 언론 및 일본정부의 평가였다. 하얼빈 의거는 요인 경호와 관련하여 일본인 환영객들에게 비표를 사용하지 않았던 일본총영사관의 책임도 있었지만, 러시아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결코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동청철도 수비대장 호르바트(Д. Л. Хорват) 장군과 주청러시아공사 코로스토펜츠가 이토의 사체를 실은 운구열차를 관성자까지 호송할 만큼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사태를 수습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sup>44)</sup> 따라서 러시아 재무상은 패전과 혁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재차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코코프초프가 안중근에 대한 처분권을 일본측에 이관하기로 한 결정은 일본의 여론을 의식한 교육책이었다. 그는 저격범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고 한국의 사법권은 일본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들은 일본영사관에 이관될 것임을 외무성에 통보했다. 이는 러일전쟁을 마무리하는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제2차 러일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고려해야했기 때문이었다.<sup>45)</sup> 아울러 이토 저격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될 러일간의 갈등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또한 코코프초프는 러시아 헌병이 채가구(蔡家溝) 역에서 조도선과 우덕순을 체포한 사례를 이토 저격을 사전에 방지 못한 책임에

п.493.Д.1279.Л.44-47об.: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Коростовца 14 окт. 1909 г.)

44) АВПРИ.Ф.150.Оп.493.Д.1279.Л.44-47об.

45) РГИА.Ф.560.Оп.28.Д.421.Л.6-6об.: Русско-Японское Сближение.

서 벗어날 수 있는 증거로 간주했다.<sup>46)</sup> 그 근거는 첫째, 이들로부터 압수한 권총의 탄알이 안중근의 것과 동일한 탄두가 갈라진 파열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공범관계에 있었고 둘째, 안중근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까지 단독으로 이동하여 역사에서 밤새도록 있었다는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는 주청러시아공사 코로스토베츠가 “우리가 경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거나 사전예방조치의 미흡함을 자책할 필요가 없다. 저격사건은 운명적인 우연이었다.”고 평가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코코프초프가 러일관계 개선과 일본과의 분쟁재발 방지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안중근을 일본측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 관구검사 밀레르(К.Миллер)는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러시아의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하얼빈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판은 러시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sup>47)</sup> 하얼빈 현지에서 수사를 위해 증거품들을 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던 측은 러시아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하얼빈 의거 당시 러시아측 희생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밀레르 검사가 이 사건을 일본에 이관하는데 끝까지 반대하지 못한 실질적인 이유였다. 안중근과 그 동지들이 러시아인들의 살상을 피하기 위해 파열탄을 장전하여 이토를 저격한 것은 이 사건을 일본에 이관하는 빌미가 되었다. 관구검사 밀레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총알이 관통하여 인접한 인물에게 총상을 입히지 않

46) 하얼빈주재 일본총영사 카와카미 도시히코(川上俊彦)도 이토 환영식을 위해 일본인들에게 자유통행권을 발급한 사실은 영사관이 강력히 요구했던 일이라고 확인해주었다. 이에 대해 관구검사 밀레르는 하얼빈 역에는 이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재무상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것은 일본측이 환영식을 조직할 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РГА.Ф.560.Оп.28.Д.422.Л.41-45. Протокол Прения Судной Палаты 14 октября 1909 г.

47) РГА.Ф.560.Оп.28.Д.422.Л.23-23об. Эпизод Прения Прения Судной Палаты

기 위하여 파열탄을 사용하였지만, 러시아인들이 상해를 입지 않게 됨으로써 러시아 측에서 피의자들을 수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sup>48)</sup> 따라서 안중근이 러시아인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이토와 그 수행원들만 저격하였음에도 이 사건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해 처리되고 말았다.<sup>49)</sup>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협력의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러일관계를 고려한 코코프초프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러시아는 실제적인 경찰력을 보유하고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하얼빈의거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여 증거품을 찾고 조사자료를 일본에 넘기는 방식으로 일본에 협조했다.<sup>50)</sup> 그 결과 사건수사를 위해 수립된 러일 공조체제는 밀레르가 수사결과 물들을 일본의 관동도독부 검찰관 미조부치 다카오(溝淵孝雄)에게 넘겨주었던 1909년 11월 3일까지 유지되었다.<sup>51)</sup>

48) НИАФ560.Оп.28.Д.422.Л41-45. Прокура Пяринного Орма Суда Миллса Гагину Прокуру Иркутской Судбой Пиллы14 октября 1909 г. 관구법원 검사 밀레르가 이르쿠츠크 법원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파열탄은 총을 쏠 때 부상자 몸 속에 박히게 되며, 파열탄이 아니었다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토는 관통상만 당하고 옆에 걸어가던 재무상 코코프체프가 부상을 당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49) НИАФ560.Оп.28.Д.422.Л23-23б. Эпиза Прокура Пяринного Орма Б/Д

50) РГИА.Ф.560.Оп.28.Д.422.Л.24-28б. Ход Сблняюсякся к убийц в Кня Ио псе 14 окбри 1909 года. 하얼빈의거 이후 러시아당국이 수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29일 이르쿠츠크 현병대에서 이르쿠츠크 지역을 수색한 결과에 대한 전보를 보내왔다. 또한 이르쿠츠크 현병대의 보고에 의거, 10월 30일 하얼빈의 한인거류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러시아경찰의 참관하에 일본영사관이 수색을 담당했다. 하얼빈 한인회장 김티훈(Ким Тихон: 김성백)의 집에서 안중근이 의거 전날 묵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김성백이 저격을 준비했다거나, 의거에 연루되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났다. 그러나 한인 9명이 체포되어 일본측에 넘겨졌다.

51) Там же. 러시아측의 수사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밀레르 검사를 만난 사람은 여순 지방법원의 미조부치 검찰관이었다. 11월 1일 군복을 입은 미조부치는 밀레르 검사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밀레르가 그 살인사건을 직접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줄 것과 둘째, 하얼빈역의 평면도와,

#### 4. 러시아의 대일접근과 한러정보협력 구상의 좌절

코코프초프가 도쿄를 방문하여 이토의 장례식 참석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이토의 운구열차를 관성자까지 호송하고 돌아온 코로스토베츠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주청러시아공사는 이토가 노구를 이끌고 만주까지 찾아왔음에도 “우리 땅”, 즉 러시아 조차지인 하얼빈에서 차단된 일은 러일관계 악화요인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얼빈의거가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적대적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킬 대책을 제안했던 것이다. 따라서 코로스토베츠에 의해 코코프초프가 조문사절로 천거된 이유는 그가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겸비했기 때문이었다.<sup>52)</sup>

그럼에도 하얼빈에서 대일조문 계획이 논의되었을 무렵, 차르 정부차원에서 일본과의 우호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조치가 취해졌다.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가 일본천황에게 이토 히로부미의 피격에 대한 애도의 전문을 보냈기 때문이었다.<sup>53)</sup> 이 전문은 하얼빈의거로 야기된 러일간의 오해와 불신을 봉합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당시의 인원배치상황 및 안중근과 가와카미 총영사 그리고 코코프초프 재무상의 위치를 알려줄 것 셋째, 이토가 의장대를 돌아서기 전 밀레르 검사와 마지막으로 악수를 했는데 이토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당시의 상황을 알고 싶어했다. 그 결과 밀레르는 11월 3일 관련 자료들을 미조부치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52) АВРИФ.150.Оп.493.Д.1279.Л44-47об.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ДСС. Коростовеца. 코로스토베츠는 코코프초프의 弔問이 러시아의 만주정책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에게도 러일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53) РИА.Ф.560.Оп.28.Д.422.Л2-2об.: Телерф От Князя Вслон йжезидри 14 ок. 1909 г.

하얼빈의거에 대해 일본측은 러시아의 경비소홀의 배경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러시아철도경찰이 채가구(蔡家溝)역에서 수상한 한국인 2명을 감시하고 이들을 역내에 억류시켰음에도 이미 하얼빈으로 이동했던 안중근의 행사장 진입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54)</sup> 따라서 카츠라 수상으로부터 이토의 피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던 천황에게 러시아 차르가 보낸 조전(弔電)은 사태를 수습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양국간에 사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고 상호 비방하는 과정은 이어지지 않았다.

차르의 조전을 계기로 일본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였다.<sup>55)</sup> 일본정부는 이토의 피격을 빌미로 러시아에 대한 과격한 대응보다는 당초 기대했던 러일 협력강화에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주일대사와 상무관 빌렌킨이 고토 신페이로부터 받은 전보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러시아에 어떠한 유감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언론 역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더욱이 고토는 이토 피격사건이 향후 러일간의 관계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언급함으로써 양국 관계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하였다. 따라서 코코프초프는 조문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10.28.)하고 계획된 여정에 따라 극동시찰을 속개하기로 결정하였다.<sup>56)</sup>

54) РГИА.Ф.560.Оп.28.Д.421.Л.29-33. Телеграмма Кюкюнов Пс  
лу в Токио, 13 окт. 1909 г.코코프초프가 사건 당일 주일대사에게 보낸 전  
문에 따르면, “음모는 조직적인 것이 분명하며, 어제 채가구역에서 러시아 경찰이  
브라우닝 권총을 소지한 3명의 한국인들을 검거하였다”고 타전했다. 우리는 러시  
아헌병이 2명(조도선, 우덕순)을 3명으로 잘못 보고하였는지, 아니면 3명을 검거  
후 안중근을 의도적으로 방면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55) РГИА.Ф.560.Оп.28.Д.421.Л.142.: Телеграмма Кюкюнов Вберу,  
15 октября 1909 г.

56) Там же. Л.124. Копия письма 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онсула  
в Харбине на имя Российского Генерал Консула 14

코코프초프는 극동시찰을 마치고 차르가 머물고 있던 흑해의 리바디아(Ливадия)궁을 방문(1909.11.30.), 시찰보고서를 상주하였다.<sup>57)</sup> 그의 상주서는 다음의 3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 동청철도의 현황과 철도수비대 상황에 대한 보고와 둘째, 블라디보스토크의 자유무역항 지정 폐지가 극동의 경제에 끼친 영향 분석 셋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방위상황 시찰관련 보고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초 극동시찰계획에 이토 히로부미와의 회동은 없었기 때문에, 상주서에는 하얼빈의거와 안중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상주서의 특징은 철도와 국방 전문가로서의 견해보다는 재무상의 입장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에 최소의 재정지출을 통해 러일전쟁 이후 극동의 안보와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책들이 제시되었다.

코코프초프가 밝힌 동청철도회사에 대한 재정원칙은 독립채산제의 구현이었다. 이는 만주를 관통하는 노선을 운영하는 동청철도회사와 같이 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업에 러시아국고에서 재정지출을 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밝힌 것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차관에 의존하여 경제를 지탱해나가는 형편에서 외국에서 운영중인 회사에 국고를 지원하는 일은 누구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 따라서 재무상은 동청철도 회사를 러시아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октября 1909 г. 하얼빈주재 미국영사(Garden Paddock)가 이토의 사망에 대한 애도보다는 코코프초프가 무사한 것을 축하하는 편지를 하얼빈주재 러시아총영사에게 보낸 것은 만주문제를 둘러싼 미러일 3국 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의 편지는 “코코프초프와 다른 러시아 관리들이 어제 비극적 사건에서 무사한 것에 진정한 기쁨을 표하고자 하며 그러한 위험한 곳에 있던 그들이 천우신조(providential)로 살아남은 것에 대해 경축”하였다.

57) РПА.Ф.560.Оп.28.Д.422.Л1-42. **Взгоданейший доклад Министру Финансов по поездке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осенью 1909.**

그렇다면 29,000명의 자아무르 군관구 소속의 철도수비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동청철도가 독자생존하기 위한 방책은 무엇인가? 코코프초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경수비대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동청철도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시한 방책은 바로 남만주철도와 호혜적인 협약체결이었다. 여순에서 하얼빈 이남의 채가구까지 운행하고 있는 남만주철도를 상호 연결함으로써 러시아의 동청철도와 일본의 남만주철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코코프초프는 동청철도 회사 비용으로 하얼빈의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제를 철폐하여 이 회사를 자율적인 조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up>58)</sup>

극동시찰의 원인이 되었던 국방력증강 문제 역시 재무상은 예산 절감의 시각에서 접근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 요새강화작업과 같은 극동의 방위력증강 문제는 과도한 위기의식이 현지 사회여론에 반영된 결과로 진단했다. 그는 이 위기감이 “만주와 간도 관련 청일 협약(1909.9.4.)”에서 일본이 획득한 길회(吉會)철도 부설권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일본이 길회철도 부설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배후에서 공략해 올 수 있다는 공포감을 고조시켰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코코프초프는 이러한 사회여론은 올바른 정세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안심리가 안보요구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코프초프는 러일전쟁 이후 극동에서 요구하는 국방력 증강 문제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함으로써 그 해법 역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군비증강보다는 지역여론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그는 변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58) Там же. Л.5-506. 코코프초프는 하얼빈의 공공기관 운영비를 현지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들에 대한 조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적인 정치환경 속에서만이 활기찬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재무상은 동청철도와 마찬가지로 극동의 방위력 증강 문제 역시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바로 일본과의 우호관계 수립에 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sup>59)</sup>

한편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이후 육군상 수호플리노프는 다른 차원에서 연해주 방위에 접근했다. 이는 재무상의 극동시찰이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사업과 방위증강을 위한 예산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코코프초프가 극동거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우호적인 러일관계 수립에 방점을 찍었다면, 수호플리노프는 보다 극동의 방위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였다.

재무상이 극동방위력 증강을 위한 예산배정에 소극적이라면 육군상이 구상한 극동방위력 개선조치는 무엇이었을까? 만일 차르정부의 경제가 유럽차관에 대한 의존을 지속함으로써 극동방위 예산이 축소된다면, 극동지역을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켜내야 할 것인가? 결국 반일(反日)이라는 공감대를 가진 협력자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수호플리노프는 스톨리핀(П.А.Столыпин) 총리에게 보낸 기밀서신(1910.5.24.)에서 일본과 충돌할 경우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sup>60)</sup> 육군상은 일본이 간도협약을 통해 획득한 길회(吉會)철도 부설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의 여순(旅順)요새를 일본해군이 해상에서 봉쇄하고 육군이 압록강을 건너 후방에서 공격해왔던 선례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블라디보스토크 요새 역시 일본해군이 해상을 봉쇄하는 동

59) РГА.Ф.560.Оп.28.Д.422.Л1-42. Всего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по поез. дже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осенью 1909.

60) РГА. Ф.1276. Оп.6.1910г. Д. 514. Л1-2: Серженце письмо Сухоминина Столыпину, 11 мая 1910 г.

안 육군이 간도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후방으로 압박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육군상이 여순 요새의 함락 시나리오가 블라디보스토크 요새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육군상이 러시아의 한국의병에 주목한 이유는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통해 표출된 강고한 항일의지를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의병과 반일연대를 구성할 경우, 예상되는 장점을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국의병은 평시의 경우, 일본군이 의병 진압을 위해 병력과 자원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주한일본군에 대한 정보수집과 방첩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전시에는, 일본군대의 후방인 한국에서 반일봉기를 일으킴으로써 양동작전을 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호플리노프는 극동 방위의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한국의병을 활용한다는 구상을 갖게 되었다.

러시아 육군상의 이같은 구상의 근거는 연혹룡강 군관구 군영(軍營)본부로부터 입수한 연해주 정보장교 엔켈(ОКЭнжел) 중령의 보고서였다.<sup>61)</sup> 수호플리노프가 “논리정연하다”고 평가한 이 보고서는 총리에게 보낸 기밀서신에 동봉됨으로써 연해주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을 러시아 정부의 최고위층에 전파하는데 기여했다. 그가 대일 정보수집과 방첩분야에 한국인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한 것도 이토 저격 사건이 한국인들에게 조국해방의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엔켈 중령의 보고서는 2년간 이상설(李相高)과 정재관(鄭在寬)을 필두로 노령지역 한인들로부터 일본관련 정보수집에 도움을 받았던 경험에 근거하고 있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한러간의 대일정보협력

61) РИА Ф1276 Оп6, 1910 г. Д 514. ЛЗ-6: Копия докладной записки, полученной в Главном Управлен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의 원형은 러일개전과 더불어 주한러시아공사 파블로프(А.И.Павлов)가 조직했던 상하이정보국(Шанхайская агентура)이었다.<sup>62)</sup> 상하이정보국 한국분과의 핵심요원들은 관립러시아어학교 출신의 윤일병(尹一炳), 강한택(姜漢澤)을 포함한 9명의 국비 러시아유학생들이었다. 이들은 러일전쟁 기간 러시아군에 배속되어 일본군 정탐과 관련된 한러정보협력 임무를 수행한 바 있었다. 이들의 지휘관은 관립러시아어학교 교사를 역임했던 동부시베리아 포병여단 대위 출신의 비류코프(Н.Н.Бирюков)였다. 따라서 비류코프가 러일전쟁 이후 청진(淸津)주재 영사로 부임(1907)한 것은 러시아군부가 주목했던 한국북부 특히 간도지역의 일본군에 대한 한러정보협력의 재건을 의미하였다.<sup>63)</sup>

비류코프가 한국인 정보원들을 통해 획득한 정보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중이던 러시아 정보장교 엔켈 중령과 블라디보스토크 요새사령부의 부드베르그(Барон АПБудберг) 중령이 공유하였다. 부드베르그 중령과 이상설 및 한국 황실의 연결고리 역할은 현상건(玄尙健)이 수행했다. 현상건에게 소개장을 써주어 부드베르그와 연결시킨 역할은 러일전쟁 이후 상하이정보국을 재건했던 러시아재무성 상무관 고이에르(Лев Викторович Гойер)가 맡았다.<sup>64)</sup> 따라서 이들 모두의 관여와 역할의 집결체가 안중근의 하

62) 최덕규, 「고종황제의 독립운동과 러시아 상하이정보국(1904-1909)」,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호, 2014. pp.43-84.

63) ГАРФ Ф. 818. Оп. 1. Д.164. Л. 43-45об.: ПисьмоГансона Извольскому, 14 мая 1907 г.: 1907년 5월 27일 상하이주재 상무관 고이에르가 외무상 이즈볼스키(А.П. Извольский)에게 “일본군이 두만강 연안에서 후퇴하고, 한반도 북부를 방대한 중립지대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만, 그들의 평화애호의 修辭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은 간도문제가 제2차 러일전쟁을 겨냥한 일본측의 사전포석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왜냐하면 1907년 8월 18일 일본정부가 통감부 간도임시파출소 개설을 청국에 통보하고 8월 19일 초대파출소장 사이토를 회령에서 용정으로 파견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고이에르는 파블로프의 귀국(1905.11.30.)후 중단되었던 상하이정보국을 재가동하여 함경북도와 간도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정보망을 재건하였다.

얼빈 의거라 할 수 있다.<sup>65)</sup>

그럼에도 육군상의 한국의병을 러시아 국방에 활용하지는 의견은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했다. 스톨리핀 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논거는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몽골은 러시아, 한국은 일본의 특수이해 지역으로 상호인정한 제2차 러일협약 체결(1910.7.4.)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황인종의 유입을 방지한다는 정부결정이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농업개혁을 주도한 스톨리핀은 시베리아와 원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농민들의 이주를 장려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연해주 이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sup>66)</sup>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연해주 방위력 강화를 위한 육군성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유럽중심의 4국협조체제의 틀 속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요컨대, 제정러시아를 회

64) РГА Ф 560. Оп. 28. Д. 390. Л. 379-387: Письмо Гойера Военному Агенту в Китае, 14 ноя. 1907 г.

65) 하얼빈의거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대동공보 사무실에서 비류코프의 제자이자 블라디보스토크 요새사령부의 통역관으로 활동했던 윤일병, 블라디보스토크 헌병대장을 역임하고 휴직중 대동공보사 발행인을 맡았던 미하일로프(К.П.Михайлов, 1872-1929)중령 그리고 안중근과 그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 기획하였다. 러시아측 자료에 따르면, 미하일로프 중령은 러시아 귀족자제들이 다녔던 오를로프 중등군사학교(Орловский кадетский корпус, 1890)와 콘스탄티노프스키 사관학교(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 военное училище)를 졸업(1892)하고 바르샤바 주둔 러시아군위대 장교로 복무했던 엘리트였다. 그는 1904년 러일전쟁 초기 블라디보스토크 헌병대장으로 부임하였다.[Сергей Волков, *Штаб-офицеры и генералы белых арм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участников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Центрполиграф, 2019. p.86.] 그를 대동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온 동역 장교는 러시아에서 유학중이던 관립러시아어학교 졸업생 윤일병(尹一炳)이었다. 미하일로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본군에 대한 정찰임무를 담당했을 당시, 윤일병 또한 비류코프의 지휘하에 일본군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는 러일전쟁 초기부터 대일정보협력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66) РГА Ф.1276. Оп.6. 1910 г. Д. 514. Л.14-14об.: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П.Столыпина Унтербергеру, 8 июня 1910 г.

생시키는데 기여한 대러차관 제공국(프랑스, 영국)들은 러시아의 국방력이 유럽에 집중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결국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 이후에도 러시아의 극동의 방위상황은 개선되지 못했다. 이는 1911년 봄 수호믈리노프가 극동시찰을 다녀온 후, 육군성과 재무성간의 책임공방으로 재연되었다. 쟁점은 예산불용액이었다. 재무성은 블라디보스토크 방위력 증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재정 지원했다는 입장이었고, 육군성은 예산집행의 경직성 때문에 불용예산 소진의 곤란함을 지적했다. 이에 재무성은 육군성의 예산불용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육군성은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잔액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다른 긴급 방위 소요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 98조에 의거, 결국 잔액을 국고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예산집행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러일전쟁의 패배와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 사회 전반에 요구되었던 개혁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부서는 육군성이었다. 육군성은 의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해당 사업에만 지출하도록 규정한 헌법 96조의 경직된 해석에 따라 국방개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sup>67)</sup> 여기에는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의 미집행도 포함되어 있었다. 육군성은 예산요구액 가운데 국고에서 충당하지 못한 3년간(1907-1909) 부족분 1억 4천만 루블을 연리 5%의 국채를 발행하여 22억8천6백만 루블을 배정하였음에도 88백만 루블이 집행되지 못한 불용예산으로 남아있었다. 이는 불용 예산을 위해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에 쟁점은 다시 헌법 96조의 해석으로 옮겨갔다. 육군성은 이

67) РГА.Ф.560.Оп.28.Д.422.Л.13-32. Гб нзюкръм втрисм Взаодан  
ошво джидМинстра Финанс 1909 год.

조항의 본연의 목적이 불용 예산잔액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방위 소요에 활용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무성은 헌법 96조를 육군성이 예산의 자유로운 처분권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고 그럴 권리도 없음을 밝혔다. 그 결과 러일전쟁 종식 직후부터 제기되었던 극동의 방위력 재건과 블라디보스토크 요새화 작업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 5. 결론

상술한 바와 같이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극동의 방위력 재건 사업은 차르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변화와 연동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선발제국주의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의 패권에 도전하는 신흥제국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위기에 처해있던 차르정부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유럽복귀를 도모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차르정부는 유럽우선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발트함대를 러시아함대 복원의 1순위로 설정했던 반면 태평양함대는 재건되지 못했다. 그 결과 극동의 방위수요는 재정부족으로 인해 미완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차르정부는 러일전쟁 이후 유럽차관에 의존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극동의 방위력 재건사업은 유럽러시아에 비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뒤쳐졌다. 그 대안으로 차르정부는 극동의 안전을 우호적인 대일관계 수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반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점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에 러시아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은 러일협력을 중시한 차르정부의 대외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러일개전

시기부터 축적해온 대일정보협력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하얼빈 의거를 단행한 안중근의 재판관할권을 일본에 이관하고 말았다.

이에 각장별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러시아의 재정위기와 대외정책의 방향전환”에서는 차르정부가 러일전쟁의 패전과 혁명의 혼란 속에서 1906년 프랑스와 영국의 대러차관을 제공받음으로써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이 기존의 극동에서 유럽으로 이동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1906년 차관은 프랑스의 중재로 영국과 러시아가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영러 양국은 아시아 대륙 전반을 둘러싼 그레이트 게임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1907년에 체결된 영러협상(Anglo-Russian Entente)을 매개로 러일협상과 불일(佛日)협상이 성립됨으로써 4개국 양탕트(Quadruple Entente)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와 일본이 영국과 프랑스가 원했던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을 강화한다면, 露領지역 한인독립운동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입장 역시 변모될 것이 틀림없었다.

제2장 “코코프초프의 극동시찰과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에서는 전후 러시아의 경제가 유럽차관에 구조적으로 종속됨으로써 그것이 러시아의 극동방위력 재건사업과 대일관계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러시아는 전후 유럽중심의 대외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극동의 안전은 방위력 재건보다는 대일우호관계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코코프초프가 하얼빈의거 직후 안중근의 재판관할권을 일본에 이관하도록 지시한 것도 러일협력 관계 수립을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러시아 사법부는 러시아의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거를 수사할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수사자료 일체를 일본에 넘겨주어야 했다.

제3장 “러시아의 대일접근과 한러정보협력 구상의 좌절”에서는 안중근의 하얼빈의거가 러일간의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고 평화적으

로 해결되는 과정과 그것이 러시아에서의 한국독립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가 일본천황에게 애도전문(1909.10.27.)을 보내면서 안중근의 하얼빈의거로 위기에 봉착했던 러일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에 극동지역 군비강화를 위한 예산획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러시아 육군성은 연해주 방위를 위해 한국독립의군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럼에도 대일정보수집과 방첩분야에 노령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요원들을 활용한다는 육군상의 의견은 정책으로 실천되지 못했다. 러일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연해주 방위력 강화를 위한 육군성의 정책들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블라디보스토크의 방위는 대일 외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러일전쟁 이후 노령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볼셰비키 혁명 이후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1918-1922)의 동기가 되었다. 차르정부는 제3차러일협약체결(1912)을 통하여 일본과 동맹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면서 극동의 방위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기대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차르정부의 비밀외교를 전면 부정한 볼셰비키 정권이 수립되자, 거의 무방비상태에 있던 극동과 시베리아 점령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러시아 육군상이 제안했던(1910)바와 같이, 한인빨치산부대들이 소비에트 군대와 시베리아에서 일본군을 축출하기 위해 협력한 역사는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안중근의 하얼빈의거는 러일전쟁 이래 축적되어온 한러정보협력의 산물이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는 대동공보사에서 하얼빈의거를 주도적으로 기획(1909.10.10.)했던 미하일로프(К.П.Михайлов) 중령이 러일전쟁 초기 블라디보스토크의 헌병 대장으로 부임하여 대일정보업무를 담당하였던 정보장교

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1904년 러시아에서 유학중이던 관립노어학교 졸업생 윤일병(尹一炳)을 통역장교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데리고 왔다. 윤일병을 포함한 관립노어학교 출신 러시아 유학생 9명은 러일전쟁 기간 러시아정보당국과 대일정보수집을 위한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따라서 하얼빈의거 계획은 양국 정보관계자들 사이에서 사전에 공유되었던 사인이었다.

다만 하얼빈의거는 차르가 천황에게 애도의 조전을 보냄으로써 정치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배후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조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따라서 하얼빈의거 계획에 대해 러시아 당국이 어느 선까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원고투고일 : 2021. 7. 2 심사수정일 : 2021. 8. 17, 게재확정일 : 2021. 8. 25.)

주제어 : 러일전쟁, 유럽차관, 발트함대 복원, 코코프초프, 극동시찰,  
안중근, 하얼빈의거, 한러정보협력, 러시아에서의 한국독립운동

## <참고문헌>

### 1. 자 료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09. Japanese–Chinese Agreement concerning Mines and Railways in Manchuria.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РГИА

Ф.560. Оп. 28 Д.416; 417; 418; 420; 421; 422; 423; 424.

Ф.1276 Оп.6, 1910 г. Д. 514.

К переговорам Коконцова о займе, Красный архив, Т.3(10), 1925

### 2. 도서 및 논문

조광, 「안중근에 관한 최근 연구의 현황과 과제(2010~2019)」,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조명 III-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동북아역사재단, 2020).

최덕규, 「고종황제의 독립운동과 러시아 상하이정보국(1904-190)」,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호, 2014.

<http://uci.or.kr//G704-000827.2014..81.003>

麻田雅文, “日露關係から見た伊藤博文暗殺-兩國關係の危機と克服”, 『東北アジア研究』 16號, 2012.

Edward E.W. The Japanese Alliance and the Anglo–French Agreement of 1904, *History*, Vol.42, № 144, 1957.

John C.G.Röhl, Wilhelm II Into the Abyss of War and Exile, 1900–1941, *Cambridge Uni. Press*, 2014.

White, John A. Transition to global rivalry: alliance diplomacy and the Quadruple Entente, 1895–19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Masato Matsui, The Russo-Japanese Agreement of 1907: Its Causes and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Modern Asian Studies*, Vol.6, No. 1, 1972.
- Crisp, Olga, The Russian Liberals and the 1906 Anglo-French Loan to Russia,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39, No. 93, 1961.
- William J. Philpott, The making of the Military Entente, 1904-1914: France, the British Army, and the prospect of War,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128, No. 534, 2013.
- Авилос РС Пь Трибу на Вскк Вил Миср Фингов  
ВНКонца в Примудий Веный сфм, Вскк То  
мскгокс универсиета №405, 2016.
- Коконца ВН Ив Мого Пршго: Вспоминия 1903-1919,  
Т.І, Париж 1933.
- Кузенцова О.Н.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развитие русско-француз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1902-1905 гг.,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 3, 2009.
- Щацилло К.Ф. От Портмутского мира к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М. 2000.

(Abstract)

Russia's Far East defense plan after the Russo-Japanese war and a policy confrontation between minister of Finance and minister of the Army

— Focusing on An Jung-geun's patriotic deed at Harbin —

Choi, Deok-kyo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anges in European international relation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on the defense plan of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in the Primorsky province. It was characteristic that the Russian Far East's defense reconstruction project after the Russo-Japanese war was linked with a change in the Tsar government's foreign policy that was the first priority of European region. The Tsar government's focus of foreign policy shifted from Far East to Europe caused by offering large loans to the Russia from Britain and France, which tried to keep Germany in check against European imperialistic hegemony. Thus, the Tsar government set the Baltic Fleet in reconstructing the Russian Navy by pursuing European prioritie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while the Pacific Fleet remained not rebuilt. As a result, The Project for defence enhancement in the Russian Far East remained unfinished till the outbreak of World War I.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sar government's defense of the Far East had to rely on diplomacy with Japan. This policy not only limite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Russia, but also motivated the Japanese intervention of Siberia (1918-1922) after the Bolshevik Revolution. Therefore, the plan (1910) of the Russian minister of Army to cooperate with Korean independent movements troops to defend the Maritime Province led to the history of Korean partisan units cooperating with Soviet army

to oust Japanese troops from Siberia.

Keywords : V.N. Kokovtsov, Ahn Jung-geun, Russian loan of 1906,  
fortification of Vladivostok, Russo-Korean intelligence cooperation.  
Russo-Japanese agreement of 1910.

